

가톨릭적으로 산다는 것:

독일 파더본 대교구의 마티아스 쾨니히 (Matthias König) 보좌주교님과 함께한 이들 간의 여정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동의 독일국제성당을 다니고 있는 엠마누엘라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독일에서 오신 마티아스 쾨니히 보좌주교님을 이틀간 통역사로서 동행하며 느낀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10년간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10년 가까이 기술 통역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 성당의 부제님의 부탁으로 처음으로 천주교 관련 통역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티아스 주교님은 6월 중순 독일 성당에서 있을 견진성사를 해주시기 위해 한국에 일주일간 방문하셨고, 이 기간 동안 수원원 두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와 경기도 수원의 성빈센트 드 뿔 자비의 수녀회였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에는 독일 파더본 출신의 하이디 브라우크만 (Sr. Heide G. Brauckmann)이라는 독일인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하이디 수녀님은 18세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셨고, 당시 6.25 전쟁으로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다른 독일 수녀님 한 분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셨지만, 그 수녀님은 한국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이 곳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디 수녀님은 남으셨다고 합니다. 남으셔서 아프고 병든 이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돌보다 보니 의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하셨고, 가톨릭 의대에 들어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통역사로 제 유창한 독일어에 항상 많은 칭찬을 받아왔는데, 하이디 수녀님의 한국어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한국인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이디 수녀님이 한국에서 겪으시고, 살아오신 삶이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고단하고 힘든 생활이셨을 것 같았는데 수녀님은 아이와 같이 맑고 밝은 얼굴에 사랑이 넘치면서도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티아스 주교님도 그러한 수녀님의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으셨고, 그 곳에 계신 모든 다른 수녀님들도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병든 이들을 돌보시지만 제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밝고 깨끗함을 지니셨습니다. 주교님과 다른 독일인 신부님 한 분과 주교님의 신학대학 동창 세분과 함께 동행했는데, 많은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주교님은 한국인 수녀님들과 함께 독일어로 미사를 주재하셨지만, 언어는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도 주교님의 강론을 통역하며, 단어를 놓칠까 조마조마 했지만, 결국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거야"라고 생각하고, 맘편히 들리는대로 통역을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원주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을 뒤로 하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수원의 성

빈센트 드 뿔 자비의 수녀회에 도착하였고 원주와 마찬가지로 많은 수녀님들이 입구로 나와 주교님과 다른 일행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성 빈센트 병원과 수녀회는 파더본의 성빈센트 수녀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파더본에서 파견된 수녀님들이 수원으로 오시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독일 파더본의 성빈센트 병원이 몇 년전 부도 위기가 왔었는데, 심지어 수원의 성빈센트 병원에서 긴급으로 자금을 보내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마티아스 주교님이 미사를 주재하셨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새벽 6시에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제 통역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수녀님들이 독일식으로 차리신 훌륭한 아침 식사를 대접 받고, 성빈센트 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독일에서 시작된 수녀회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시고 무척 감격하셨습니다. 병원 전체를 꼼꼼히 둘러보셨고, 병원 및 수녀원 곳곳의 잘 갖추어진 모습들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저의 독일인 통역사로서의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교님과 함께 동행하신 젊은 독일인 신부님, 하이디 수녀님, 다른 많은 한국인 수녀님들. 저마다의 역경을 딛고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스승삼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들. 통역 일을 한다고 거만하진 않았나, 나를 믿고 맡겨 주는 이들에게 충분히 감사했었나, 공장과 현장을 쫓아다니며 해야 하는 통역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만 했던건 아니었나.

나는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 걸까? 하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간 여운을 남긴 여정을 떠올리며, 일요일 견진성사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독일 청소년 6명과 다른 한국인 한분과 나, 모두 8명이 마티아스 주교님께 함께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주교님은 수녀원 두 곳과 독일성당 강론에서도 내 얘기를 잊지 않고 해주셨는데, 통역일을 해준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견진성사를 받는 동안, 가톨릭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톨릭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잘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며칠간 만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살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에 십자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답은 모르지만, 어쩌면 이 물음이 저를 답으로 안내해 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